

유가 급락: 트럼프의 성명서

화요일 WTI는 6.6% 급락한 53.43달러로 마감. 10월 초 고점 대비 30% 하락
미국 주식시장 하락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에 대한 성명서 발표 때문
다시 한 번 감산에 대한 기대감 약화. 변동성 확대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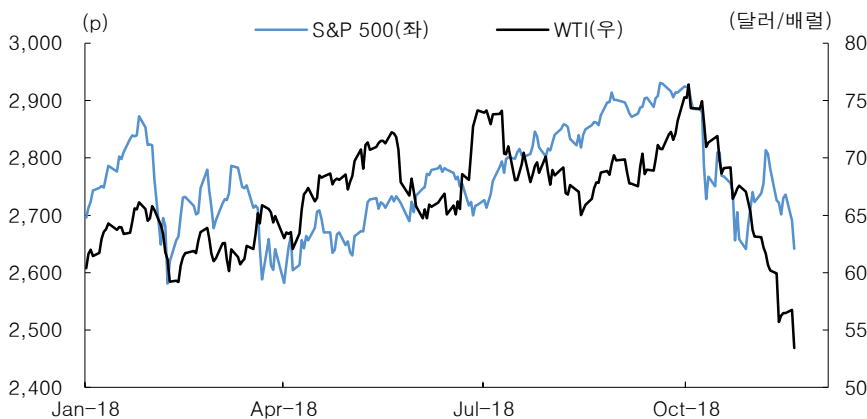
다시 급락한 WTI

일주일 만에 국제유가는 다시 급락했다. 화요일(20일) WTI는 6.6% 하락한 53.43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 또한 Brent 역시 6.4% 하락한 62.53달러를 기록했다. 결국 WTI와 Brent 모두 10월 초 고점 대비 각각 30.1%, 27.5% 하락했다.

이번에 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최근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현상 때문이다. 지난 10월 초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당시 유가 역시 이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가의 급락을 야기했던 또 다른 트리거는 바로 사우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였다. 카슈끄지 사건과 사우디의 감산 여부를 두고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림 1] S&P 500지수와 유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서태종

taejong.seo@truefriend.com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변함없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발표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성명서를 통해 사우디와 변함없는 파트너 (steadfast partner)로 남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카슈끄지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범죄(unacceptable and horrible crime)라고 비난하면서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maybe he did and maybe he didn't)면서 그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원유 시장에 대한
코멘트 역시 잊지 않음

그리고 성명서 말미에 원유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다음으로 사우디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그들(사우디)은 우리(미국)와 긴밀하게 협조해왔으며 유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나의 요청에 즉각 반응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그림 2] 원유 시장에서 사우디와의 협조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

I understand there are members of Congress who, for political or other reasons, would like to go in a different direction – and they are free to do so. I will consider whatever ideas are presented to me, but only if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absolute security and safety of America. After the United States, Saudi Arabia is the largest oil producing nation in the world. They have worked closely with us and have been very responsive to my requests to keeping oil prices at reasonable levels – so important for the world.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intend to ensure that, in a very dangerous world, America is pursuing its national interests and vigorously contesting countries that wish to do us harm. Very simply it is called America First!

자료: White House, 한국투자증권

다시 한 번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100~140만 b/d 수준의 감산을 원한다는 설이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명서로 인해 사우디가 카슈끄지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다시 높아졌다. 원유 시장에서 사우디와의 공조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유가 안정화를 위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6일에 있을 정례회의를 앞두고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약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유가 변동성 확대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